

# ●시나가와 역사관 해설지 오이카시마 유적

오이카시마 유적

오이카시마 유적은 1983 년,  
시나가와 역사관(도쿄도  
시나가와구 오이 6-11-1) 건설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약  
1,500 ㎡의 발굴 범위에서  
26 채의 주거터, 토기, 실을



▲1983 년의 발굴 풍경

жат을 때에 사용하는 방추차,  
숫돌 등이 발굴되었습니다. 토기의 특징  
등으로 보아 이 유적은 5 세기부터 7 세기말에  
걸쳐 단속적으로 형성된 마을의 일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의 유적이  
시나가와구 내에서 발견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후 2009 년까지 9 차례의 조사가



▲오이카시마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실시되어, 발굴된 주거터는 총 45 채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토기

하지키: 야요이 시대(기원전 300 년경에  
시작된 시대. 먹을 것을 구하는 수단이  
수렵에서 농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가 도쿄도 분쿄구 야요이에서  
발견되어 야요이 시대라고 불립니다.)에  
제작된 토기의 흐름을 계승한 토기. 붉은  
빛을 띤 갈색입니다. 띠 모양의 점토를 말아  
올려 형태를 만들고, 들판에 불을 놓아

구웠습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아 내화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독 등 취사용 토기를  
중심으로 단지, 사발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후술하는 스테키가 보급된 후에는 그 기술을  
도입하거나 표면에 슷을 흡착시켜 내수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변화를 이뤄내면서  
3세기부터 8세기 내내 제작되었습니다.

스��키: 5세기에 한반도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기 시작한 회색 토기입니다. 전문  
기술자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재료인  
점토를 엄선하고, 녹로를 사용해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하식 가마에서 1,000도  
이상의 고온(하지키는 800도 정도)에서  
구웠습니다.

하지키에 비해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단지 등의 저장 용기나 잔 등의 식기가  
만들어졌습니다. 12세기경까지 사용되었으며  
그 기술은 훗날의 도기에 계승되어 갔습니다.

발굴된 주거터

시나가와 역사관의 정원 한 모퉁이에는 오이카시마 유적에서 출토된 주거터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네모나게 아래로 파 내려간 곳이 바닥이고, 기둥을 세우기 위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지상의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 사례가 적어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기둥 위에 들보를 얹고 띠 등의 식물로 엮은 초가지붕이 지면까지 이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닥을 네모나게 에워싼 흙은 배수용 혹은 벽판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구조의 주거는 방한성이 뛰어나, 조몬 시대부터 8세기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거의 북쪽 벽 옆에는 부뚜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뚜막은 취사를 위한 시설로, 5세기에 한반도에서 전래된 이후 급속히 보급되었습니다. 부뚜막 본체는 점토와 모래를 재료로 사용했으며, 보강을 위해 토기를 심으로 삼은 것도 있습니다. 불을

때는 부분에는 연기를 집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구멍이 뚫어 있어 굴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불을 때는 부분에서는, 불에 올린 독을 떠받치기 위한 토제 받침발이 출토되었습니다.

당시 마을의 생활상

오이카시마 유적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반지하식 주거에 살았습니다. 입구는 남향으로 나 있고, 사다리 같은 것을 놓아 드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입구 반대편의 벽에는 부뚜막을 만들어, 평소에 여기서 취사를 했습니다. 집 중앙부의 바닥은 발로 밟아 단단하게 잘 다져져 있는데, 평소에 여기서 일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좌우의 벽 옆에는 깔개 등을 깔아, 거실이나 침실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부뚜막 주변에는 물독과 토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취사나 음식을 담는 등 용도에 맞게 토기를 구분하여 사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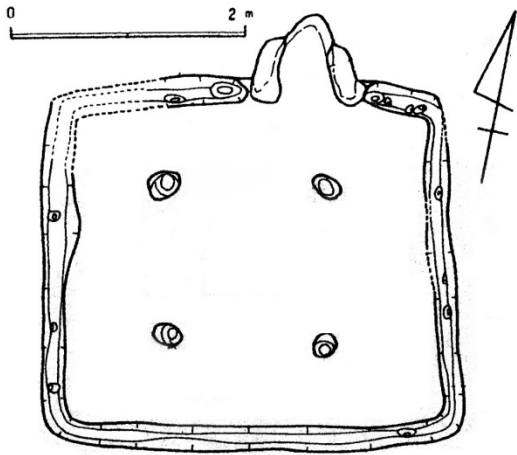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오이카시마 유적에서는

숫돌과 방추차가 출토되었습니다. 숫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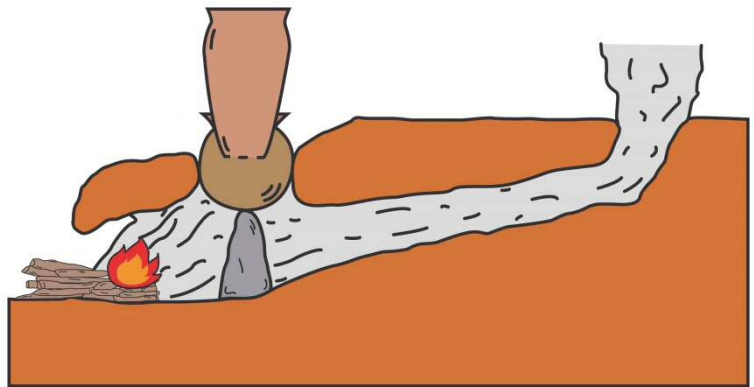
보아 철제 도구가 보급되어 있었음을,

방추차로 보아 실을 자아 피륙을 짚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거터 배치도



▲부뚜막 단면도